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범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광주일보와 전남대 문화예술사범사범단이 공동 기획한 심층탐사 시리즈 '온누리안 리포트'의 마지막 편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소망을 들어 봤다. 그들은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일상의 고단함을 호소하면서도 정(情) 많은 이웃들

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가장 큰 바람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녀교육에 대한 배려였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열린 다문화사회'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6부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

<27> 이주여성들의 200자 소망

“안정적인 일자리·자녀교육 배려 가장 절실해요”

전문지식 활용 일자리 부족 아쉬워



유상호 (37·중국·광산구 도산동)
결혼한 지 12년 됐고 현재 중국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쉽다.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관공서 민원실에 통역요원을 배치해 줄 수는 없을까. 도로 이정표에도 중국어 표기가 돼 있으면 좋겠다.

상대 문화 존중하고 이해해야



레이문도 미셀 (30·필리핀·여수시 미평동)
한국 생활 1년 7개월째지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역시 문화적 차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대립이 가장 힘들다. 이웃들부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자립능력 키워도록 정책적 배려



레티칸 (23·베트남·영광군 묘량면)
4개월째 간병인으로 일하는 병원생활에 애착이 크다. 한글을 읽고, 말을 알아 들을 수 있지만 가끔 이해를 사기도 한다.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실이나 문화교실과 같은 문화적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면 한다. 또한 이주여성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생활 보탬되게 취업문 넓어져야



셰레인 에스토 (35·필리핀·나주시 반남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처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극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나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도 받고 있다.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취업문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었으면



도로티 씨티바 (34·필리핀·고흥군 포두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의사소통이 안 돼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 1회 2시간씩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 교육과정 중에 느낀 것이지만 주위의 많은 이주여성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

국제전화·항공티켓 혜택 필요



일루미 마다씨드 그라사 (39·필리핀·보성군 보성읍)
이주여성들은 무엇보다 한글을 익히는 것이 절실하다. 시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 오해와 싸움이 잦기 때문이다. 친정에 자주 갈 수가 없으므로 국제전화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2~3년에 한 번씩 외국에 갈 수 있도록 항공 티켓을 받았으면 한다. 아이가 있는 이주여성들은 병원비·학원비 걱정을 많이 한다.

한글 학교 다양한 학습에 감사



응웬원 피 하우 (25·베트남·순천시 연향동)
매주 순천 외국인 한글 학교를 다닌다. 한국어와 수학, 음악, 영어, 미술 수업과 한국 예절과 생활을 많이 배운다. 집에서 아이들과 복습하며 가족의 정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집에서 한글학교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 선생님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 데리고 간다.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사람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다니꾸찌 미수미 (44·일본·목포시 온금동)
외국인들끼리 한글과 한국 요리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감지도 담고 음식도 만드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면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10년간 한국에 시집와서 그동안 일본식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면서 살았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풍토가 절실하다.

외국인 이라는 시선 버려야



오옥완 (26·베트남·강진군 강진읍)
1주일에 한 번씩 성 요셉 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교육 및 모임이 있어 너무 좋다. 한국말을 못해도 주위의 아줌마들이 이해를 잘 해주고 친절해 고맙다. 비슷한 민족이니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1년에 한차례는 고향에 가고 싶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절실



나이순 (31·필리핀·함평군 함평읍)
99년 결혼 후 귀화해 한국이름으로 바꿨다.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해 힘들었다. 지금은 한글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한국말은 불편하지 않게 잘한다. 올 3월부터 영광소재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절실하다.

마주치면 미소라도 지어주길



강춘화 (34·중국·신안군 입해면)
낯설고 물설어 두렵고, 말까지 서툴러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하다. 지나치면 서 미소하곤 지어주고 따뜻한게 이야기 해주면 정말 편안함을 느끼면서 즐거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 취업환경이 열악하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줬으면 한다.

한국어·문화 배울 곳 없어 아쉬움



찐티몽 (25·베트남·곡성군 오곡면)
일상생활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가사일만 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마련돼 주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배려와 더불어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 아쉽다.

사교육비 안들게 학교교육 강화



아마사키 나오코 (41·일본·장흥군 장흥읍)
한국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나 또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내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학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한다.

시골지역 일자리 더 늘려야



시모다 지스즈 (45·일본·구례군 광의면)
일본 사회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민은 장이 많아 좋지만 질서엔 부족한 것 같다. 처음엔 언어와 문화가 달라 고생했지만 지금은 가정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행복수가 최고이다. 구례는 자연환경과 인심이 좋지만 시골이다 보니 불편한 점도 있다. 일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인정받고 따뜻한 한국사람 고마워



마리로우 래그다미오 (27·필리핀·광양시 광양읍)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정이 많고 이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 좋다.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이와 대화를 가져 줄때 참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글> /지방종합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sections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한일지도판매(주)', and '현대공인중개사'.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features.